

독립운동 숨은 주역들... 이들이 있었기에



박애순 김안순 박영자 김덕순 윤형숙 강화선 이나혈 최경애 양태원 고연홍

남성 뒤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 재조명해야

1919년 3월 10일 수피아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윤형숙 열사는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만세운동에 나섰다. 대열 앞에 있던 윤 열사는 일제 기마 헌병의 칼에 왼팔이 잘렸지만, 끝까지 오른 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들다 주동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윤 열사는 투옥 중 고문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데 이어 왼쪽 눈마저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윤 열사를 '외팔이', '외눈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윤 열사는 아랑곳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윤 열사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고향 여수의 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글을 가르치는 등 '문맹퇴치' 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성 중심 항일

만세운동 중 팔 잘리고 눈 실명 '광주의 유관순' 윤형숙 열사 등 광주·전남 여성 유공자 41명 서훈 기준 수형 3개월 이상에 상당수가 유공자 등록 안돼 전수조사 통해 발굴 나서야 26일 심포지엄·전시회 개최

운동사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 전남지회(이하 광주전남지회)가 26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광주전남 항일독립운동 속의 여성들' 심포지엄을 앞두고 미리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독립유공자(1만5180명) 중 여성

(357명)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광주·전남 출신은 1107명 중 41명(3.7%)이 여성이다. 최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이 속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중 여성의 선정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게 광주전남지회의 주장이다. 광주전남지회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공자 선정 비율이 낮은 이유로 기존 여성 독립유공자에 대한 연구 부족과 국가보훈처의 서훈기준이 수형 3개월 이상인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독립운동가 대부분은 학생들이어서 수형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3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았는데, 독립유공자 선정은 수형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지속되면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발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들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눈

부신 활약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 만세운동은 수피아여고, 목포 만세운동은 정명여학교(현 목포 정명여고·여중)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1928년 장매성·박계남·박채희·박현숙·김금연·김귀선 등은 '소녀회'를 만들어 여성운동과 항일운동을 전개하며 광주학생운동의 원동력이 됐다. 1929년 최순덕 등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학생들은 같은해 11월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일제의 만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아라 여사 등 1930년 수피아여고 출신 여성들은 '백청단'이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어 중국 상해임시정부와 연계해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이어갔다. 또 구한말 의병장 강부경의 부인 양방매(1890~1986) 여사는 남편을 따라 항일 유격전에 참가했고 나주 출신 임소녀(1908~1971)는 1940년 광복군에 입대해 해방 때까지 활동했다.

이경순 전남대 명예교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3·1운동, 광주학생운동의 여성 참여 집중 조사, 남성 독립유공자 제적원부 역추적 통한 여성 인명 발굴, 일제강점기 판결문·범죄인 명부·수형기록 전수조사, 구한말 여성 의병 조사 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 전남지회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131점을 선보이는 '오늘 그들 여기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전남 출신은 물론 영화 '암살'의 실제 주인공 남지현,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소설 상록수 주인공' 최용신 등도 만날 수 있다. 명진 광주전남지회장은 "독립운동은 남성"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름 없는 여성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전시회와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보성 초암산터널 추돌사고 트레일러 화재로 교통 통제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운전자들이 긴급 대피했다. 25일 낮 12시 20분께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 초암산터널 안에서 김모(30)씨의 트레일러에 불이 났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트레일러가 모두 타면서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찼다. 다행히 사고 직후 터널 관리사무실 직원이 내부에 있던 차량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차량의 추가 진입을 막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뒤따라오던 김모(62)씨의 25t급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추돌하면서 불이 났다. 경찰은 순천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국도 2호선으로 우회 시키고 2시간여 동안 현장을 수습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25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에이스침대'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62)씨가 떨어져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5층 높이에 있는 승강기 분체 위에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던 중 갑자기 승강기가 작동하자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승강기 위에서 작업 중인 사실을 모르는 작업자가 승강기를 작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자, 동료 작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3·1운동 100주년 금남로서 만세대행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광주 금남로에서 3·1운동 당시의 모습이 재현된다. 25일 광주 3·1혁명 100주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부터 광주시 동구 광우로와 앞 사거리에서 5·18민주광장까지 3·1만세대행진을 한다. 이번 행사는 100여명의 시민 재연 배우가 당시의 상황을 연출한다. 이날 낮 12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이웅섭 광주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3·1절 기념식을 연다. 이어 참가자들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나아갈 방안을 담은 '광주선언'을 발표하고, 같은날 오후 6시30분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만세대행진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행진을 펼치며 3·1운동을 기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수 리조트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다른 가족들에 미안" 유서 발견

일가족 4명이 리조트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여수시의 한 리조트 객실에서 아버지 A(53)씨, 어머니 B(50)씨, 딸(23), 아들(13)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객실에서는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 리조트 종업원은 숨진 A씨 가족이 퇴실 시간인 오전 11시가 지나도 나오지도 않고 객실 전화로도 연락이 닿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지역에 사는 A씨 일가족은 전날 오후에 입실했으며, 외부의 침입 흔적 등은 없었다. 경찰은 A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25일 오후 여수시의 한 리조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사망자의 차량 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 일주일만에 또 차량·금품 절도

광주광산경찰, 30대 구속

광주광산경찰은 25일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시동이 걸린 차만 노려 차량과 금품을 탄 A(32)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길가에 정차된 B(47)씨 소유의 K3 차량을 몰고가는 등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K3, 스포티지, 아반떼 등 4500만원 상당의 차량과 차량 안에 보관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9일 출소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장소 인근 50여개의 CCTV를 분석하는 등 동선을 추적한 끝에 광산구 운남동 한 P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거스름돈 100원에...택시기사 폭행

○거스름돈 100원을 늦게 거슬러준다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서행. ○2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배를 손으로 한 차례 찌르고 발로 걷어차듯 위협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택시비 4900원을 지불하기 위해 5000원을 냈는데, 잔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와 택시기사 사이에 택시비 계산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1)	광주교육대학교(1971)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문 의: 062) 520-4243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http://always.kwu.ac.kr	http://www.gnue.ac.kr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면꽃재수지 점 1192㎡ 조용한 생활적합 1억2700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정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룽7 영업질문 임대중 4억7천
- 남구 월산동 동신대 사회복지관 부근 3중주거지 228㎡ 2억5천
- 강진 성현면 월출산말 4차선 점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주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서석동 4층상가 3세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중 12억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정읍 신대인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3억 7500
- 장흥군 수문해수육장 바다인접 2346㎡ 팬션 등 적합 5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여수, 땅

- 여수시 봉강동 343-1, 2, 344번지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대지 431평, 6차선 도로점
- 일반상업지역-90%
- 대출-18억7500만원
-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회사사정상 급매)

문의. 010-6834-7400